

# 지하철 복공판 위 질주 차량, 눈길사고 위험천만

주말 내린 폭설 곳곳 빙판길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 위험↑  
“감속 불구 사고날까 무서워”  
울 운전·보행 민원 1800여 건  
광주시 “동결 상시 대비 점검”

“도로 곳곳이 다 복공판(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이라 비나 눈이 올 때면 불안함이 커지죠.”

주말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심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깔린 복공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17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나주·담양·장성·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진도·신안(흑산면 제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16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5~10cm, 많은 곳은 최고 14cm의 눈이 쌓였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모두 해제됐다.

쌓인 눈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차량과 시민들은 빙판길 같은 도로를 ‘엎드려’ 다녀야 했다.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 서구 풍암동 인근.

공무원들의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지하철 2호선 공사로 미처 제설 작업이 닿지 못한 곳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었다. 노란 형광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은 혹여 차량 사고가 날까 도로 한편에서 교통

통제를 하기도 했다. 공사장 인근에 설치된 복공판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 보였다. 복공판은 강철로 만들어져 비·눈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등에 취약하다.

비슷한 시각 찾은 남구 백운광장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한차례 제설 작업이 끝난 상태였지만 곳곳에 복공판이 설치돼 있어 미끄러웠다. 썰렁 얼어붙은 도로를 ‘아슬아슬’ 건너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감속 운전에도 차체가 흔들려 앞·뒤차와 부딪힐 뻔한 상황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손모(70)씨는 “비나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복공판이 미끄러워져 나이 든 사람들은 길을 건너기 힘들다”며 “오늘도 10분 남짓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서너 번 넘어질 뻔했다”고 토로했다.

평소 차를 타고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양모(32)씨는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날 뻔할 적이 많다”며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봤는데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본부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하철 공사 관련 민원은 1800여건 정도다. 민원은 △안전·교통체증 △보철 보수 요청 △유도선 도색 요청 △복공판 미끄러움 방지 요청 등

이다.

이 가운데 복공판 미끄러움 민원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많이 접수된다.

도시철도공사는 눈 예보가 이어짐에 따라 복공판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본부 관계자는 “동결 위험이 있는 공사 구간에 재설 자재를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한파 예방 훈련 및 교육을 마친 상태”라며 “동절기 폭설을 대비하기 위해 상시 점검·비상근

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도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 등에 나섰다.

전남도는 1005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 기상·도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제설구간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56개소 전진기지를 구축했다. 현재 143개 노선 2451km에 장비 130대, 제설제 623톤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 5개구는 국도·무등산 등 취약지역

을 중심으로 제설 차량·비상근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또 자생 단체 회원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제설반을 운영하며 급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첫눈이나 다름없는 폭설이 내렸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며 “광주 도심 곳곳에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눈 쌓인 광주 광주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7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나건호 기자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 총책 검거

3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목포해양경찰이 전남 서부권 마약류 공급 총책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목포해경은 마약류 공급 총책인 베트남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0대)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6월부터 마약류 공급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씨를 검

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광주, 대구, 시흥 등지의 건설현장 노동자로 은둔·도주생활을 지속했다. 해경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17g이 발견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20대 B씨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월 전남지역 일대 해상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 ‘아바’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4명을 검거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목포소재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매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명을 검거했다. 송민섭 기자

## 민노총 “급식실 손목 절단 사고… 예견된 인재”

전남 한 학교 급식실 내 산재 사고에 대해 노동 단체가 사용자 측인 교육 당국의 방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순간에 전남 학교 급식실에서는 노동자 손목이(고추 양념)분쇄기에 절단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노동자는 결국 손목 절단 수

술을 받았다. 영광·장흥·완도에서도 학교 급식실 분쇄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노조는 분쇄기 철거를 교육청에 요구해왔다. 김치완제품 사용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사용자 산재 예방 의무·책임은 방기하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도 이날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양념 분쇄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비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zgm**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 지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                        |                         |
|------------------------|-------------------------|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